

# 장애인과 일터

Vol.343

2023 NOVEMBER  
KEAD Monthly Magazine

조심조심, 안전은 필수



### 장애인과 일터

KEAD Monthly Magazine



2023 NOV, Vol.343

#### 조심조심, 안전은 필수

어느새 늦가을입니다. 공기가 점점 더 쌀쌀해지면서 가을의 마지막 숨결을 느끼게 합니다. 나무는 알록달록 아름다웠던 나뭇잎을 떨구고, 세상을 청명하게 비추던 햇빛도 많이 짧아졌습니다. 이러한 환절기일수록 건강을 유지하고 조심조심 생활 속 안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막바지 가을날을 무탈하고 여유롭게, 온기 넘치는 겨울도 맞으시기를.

## 공감, 두드리다

- 03 **공감 테마**  
조심조심, 안전은 필수
- 04 **생각 더하기**  
안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 기본
- 06 **공감 인스타**  
공단 직원들의 테마 이야기
- 08 **KEAD 사전**  
유도 블록의 역사 알아보기
- 10 **일터 트렌드**  
의료서비스 지원가

## 공감, 만나다

- 12 **행복한 내일**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하고 싶은 일이 생깁니다.”
- 16 **함께하는 일터**  
“계약업계 최초 장애인표준사업장, 상생으로 앞서 갑니다.”
- 20 **우리는 KEAD**  
“그냥 자리가 멀어도 의지되는 그런 사이입니다.”
- 24 **KEAD 포커스**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재난안전’ 바로 알기
- 28 **세계는 지금**  
몽골, 장애인고용 정책에 도전하다

## 공감, 함께하다

- 32 **트렌드 보고서**  
FUN해야 사는 MZ들
- 34 **배리어프리 여행**  
작은 한반도 속으로, 강원도 영월
- 36 **컬처 플러스**  
이탈리아 영화, 천국의 속삭임
- 38 **#공감태그**  
나누고 싶은 일상의 발견
- 39 **KEAD 톨**  
함께 일하는 세상을 위한 장애 유형별 에티켓  
- 뇌전증장애 편
- 41 **KEAD 뉴스**
- 42 **KEAD SNS**

## 조심조심, 안전은 필수

### 우리 모두를 보호하는 안전의 중요성

출근길의 버스에 앉아 스마트폰 사회면을 가득 채운 다양한 사건 사고를 보고 있으면 가장 먼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중 특히 예방할 수 있었던 많은 사고는 새삼 안전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하지요. 안전 소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잠재적인 위험은 우리의 일상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코드를 뽑지 않은 전기담요, 외출 시 잠그는 것을 깜빡한 가스 밸브, 불편하다고 쓰지 않은 전동킥보드 헬멧, 사무실 한구석 먼지가 쌓인 채 방치된 소화기, 습관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사용하는 일터의 기계들...

번거로워서, 깜빡해서, 지금까지 별일 없었으니까 등의 다양한 이유로 안전을 경시하는 우리의 습관은 크고 작은 부상부터, 때로는 우리 모두를 슬픔에 잠기게 만든 사회적인 재난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나 ‘빨리빨리’를 입에 달고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 는요, 안전은 권장이 아닌 필수입니다. 안전을 챙기는 건 일차적으로 나를 위한 행동이고 크게 보았을 때 내 옆의 가족, 이웃, 친구, 동료,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실천 행동이지요.

어디선가 불어오는 찬 바람에 옷깃을 여미고, 색색의 낙엽을 밟으며 걷다 보면 가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지난해 늦가을이던 어느 날, 아름다운 수많은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에 관한 생각을 떨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애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조심조심,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11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 기본

글 배용호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건강환경건축연구실 이사



## 배리어프리 환경에서 안전이 중요한 이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Environment)’이란 장애인, 노인,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의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고 접근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말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의미를 접근과 편의 제공에만 국한해서 생각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일명, BF 인증)’ 기준 역시도 그러한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배리어프리 환경의 가장 큰 의의는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이다.

아무리 편리하고 접근이 쉬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안전하지 않다면 무슨 소용일까. 예를 들어, 폭이 넓고 단차(段差, 높낮이)가 없어 편리해 보이는 복도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복도의 바닥이 미끄러운 재질로 만들어져 있다면?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약간의 물기에도 쉬이 미끄러져 크게 다칠 것이다. 이처럼 배리어프리 환경이란 편리성과 접근성 그리고 안전성이라는 삼박자가 고루 갖춰져야 한다.

## 우리나라 BF 인증 기준, 복도와 손잡이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은 무엇일까. 먼저 ‘복도 기준’을 살펴보면 1.2m 이상의 유효폭 확보, 2.1m 이하의 보행장애물 제거, 2cm 초과하는 단차 제거, 평평한 바닥마감, 물에 젖어도 미끄럽지 않

은 바닥마감이 기준이다. 이는 접근로, 방풍실(출입문과 실내 경계 부분), 복도(통로), 계단, 경사로 및 화장실 바닥 등 대부분의 바닥이 있는 환경에 모두 적용된다. 특히 미끄러운 바닥마감은 낙상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다.

둘째로 '손잡이 기준'이다. 손잡이는 계단과 경사로, 엘리베이터 내부는 물론이고 복지시설과 의료시설 복도의 규정에 맞도록 설치해야 한다. 손잡이가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넘어지거나 몸의 중심을 잃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설비이기 때문이다. 손잡이의 세부 규정으로는 계단의 양쪽 모두 높이 85cm 내외로 손잡이를 설치해야 하며, 경사로도 높이가 15cm 이상일 때에는 양쪽 벽면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평소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평 손잡이를 많이 봤을 것이다. 이 역시 혹시 모를 넘어짐 사고나 중심을 잃었을 경우 잡을 수 있도록 한 안전장치다. 계단과 경사로의 추락방지턱도 마찬가지인데, 계단이나 경사로의 양쪽에는 5cm 이상의 추락방지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휠체어가 경사로 밖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각장애인이나 노약자, 어린이의 발이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 보행장애물 및 피난과 대피 기준

셋째로 '보행장애물 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높이 2.1m 이하에 장애물을 두지 않도록 하며 벽으로부터 튀어나온 장애물은 10cm 이내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2.1m 이내의 장애물이 있을 경우 바닥으로부터 60cm 이상의 보호벽이나 난간을 설치하여 충돌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보행장애물에 대한 기준은 시각장애인, 어린이 등이 보행장애물과 충돌하여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기준들이다. 출입문 전·후면이나 계단의 시작과 끝에 설치되는 점형 블록 역시 시각장애인에게 문과 계단이 있음을 미리 알려줌과 동시에 문과의 충돌 방지 및 계단에서의 추락 방지를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피난과 대피 기준'이다. 시각장애인의 대피를 위한 비상벨 또는 음성안내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청각장애인의 대피를 위해 경광등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피난구 유도등'도 중요하다. 이 장치는 음성과 점멸이 동시에 지원되는 유도등으로 화재 등의 비상시에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기구다. 또한 각각의 실(방)에 대피가 가능한 피난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기적인 피난 훈련에 대한 시행계획과 매뉴얼도 갖추도록 하고 있다(BF 인증 최우수 등급 기준).

이 외에도 BF 인증에는 여러 기준이 있지만, 위와 같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무엇보다 이러한 안전 기준들은 편의 및 접근과 함께 장애인 등 이용자들의 안전과 사고 예방에 우선한 것들이다. 따라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 된다는 것은 편리하고 접근이 가능한 환경이 된다는 것과 동시에 장애인과 교통약자 등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더욱 확대하여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 공단 직원들의 테마 이야기

## 안전을 지켜요, 우리 모두를 위해!

행복한 일상생활을 위해서는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원들은 수많은 위험 요소에 관해 어떤 안전의식을 가지고 있을까. 이들이 말하는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주변을 찬찬히 살펴보자.

정리 편집부 그림 CANEPAZZO



**고제훈 차장**  
기획조정실 운영지원부

공단 본부 기획조정실 운영지원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 부서 내부 성과평가, 국유재산 관리 등의 역할을 맡아 다양한 일을 수행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차량 운전 시 ‘생명띠’로 잘 알려진 안전벨트 착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벨트는 사고 시에 탑승자가 차에서 튕겨 나가거나 차체에 부딪히는 것을 예방해 주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가족들과 외출할 때 항상 다시 한번 안전벨트를 착용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어린 두 자녀는 제가 직접 각자 카시트에 태워서 안전벨트를 매주고 있습니다.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2018년도 출근 중 신호등이 노란색으로 변경되는 상황이었어요. 앞 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아 뒤따라가고 있던 제가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어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렇듯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나부터라도 실천하자’라는 마음을 가진다면 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사용하지 않는 가전 제품 전원코드 뽑아두기, 소화기 사용법 숙지하기 등 일상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을 해보신다면 어떨까요?

“

안전사고는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장영모 과장**  
기업서비스국 기업지원부

“

**안전의식을 상기시키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기업서비스국 기업지원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의무 사업주가 매년 1월 말까지 제출하는 ‘장애인고용 계획 및 실시 상황 보고’ 접수,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지원 등의 업무를 이행하고 있어요.

저는 일상생활에서 자차로 출·퇴근하고 관외 출장을 자주 다니다 보니 항상 안전운전을 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따라서 교통안전을 가장 중요한 안전의식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인프라에 대해 생각해보았는데요, 기존 ‘배리어프리 인프라’가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물리적인 장애물과 심리적인 벽을 제거하는 것이라면요, ‘유니버설 인프라’는 이에 더해 사회적 약자 뿐만 아니라 성별, 언어, 나이 등으로 인해 모든 부분에서 제약받지 않고 편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때문에 유니버설 인프라는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과 편리성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안전에 관해서는 다소 과하게 느낄 수 있더라도 지속적인 안전 염려증이 필요할 것 같아요. 평소에 방심하지 않도록 안전 관련 캠페인 활동, 포스터 부착, 안내 팸플릿 배포 등으로 안전에 관해 상기시켜 줄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부 안전보건팀에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안전·보건·환경(SHE) 경영방침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요.

저는 대부분의 업무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다 보니 직장 내(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산업재해 발생 직접 원인의 88%가 ‘불안전한 행동’인 만큼 근로자가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보다 적극적인 안전 활동 참여와 같은 안전의식 고취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전에 재해 예방 전문기관에서 근무하며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2미터가량의 높이에서 작업하다가 발을 헛디더 머리부터 떨어져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였어요. 이를 통해 중대재해가 고위험 업종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안전박람회 방문해 인상 깊게 보았던 안전시설이 있는데요, 전기차 화재 시 진압할 수 있는 ‘침수 수조’였지요. 전기차는 일반 차량과 다르게 배터리에 화재가 발생하면 일반 소화기로 진압이 어려워서 물과 냉각으로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장시간 물을 뿌려도 진압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화재 시 크기 조절이 용이한 이동식 침수 수조가 상용화된다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유수현 안전관리자**  
기획조정실 운영지원부 안전보건팀

“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 유도 블록의 역사 알아보기

##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길을 걷다 보면 흔하게 볼 수 있는 노란 블록. 바로 시각장애인이 보행할 때 발바닥이나 지팡이의 촉감으로 위치와 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한 ‘유도(점자) 블록’이다. 인도나 건물 내부 바닥에 울퉁불퉁하게 돌출되어 설치된 유도 블록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글 편집부



### 루이 브라유(Louis Braille)가 발명한 점자에서 발전

유도 블록은 1824년 파리맹학교 교사였던 ‘루이 브라유(Louis Braille)’가 고안해 낸 점자를 토대로 발전했다. 1965년 일본의 엔지니어이자 발명가인 ‘미야케 세이이치(Seiichi Miyake)’는 친구의 실명에 안타까움을 느꼈고 유도 블록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돛 형태의 돌기가 7X7열로 49개가 줄지어 있는 보도 블록이 제작되었다. 이후 1967년 일본 오카야마의 현립 오카야마 맹인학교와 가까운 국도 2호 주변 교차로에 최초의 보도블록이 설치됐다.

1974년에는 ‘도로의 맹인 유도시스템 등에 관한 연구위원회’가 조직되어, 1975년 두 차례에 걸친 실험을 통해 좀 더 명확한 설치 기준이 마련되었다. 이 실험에서는 유도 블록이 시각장애인들에게 완전한 유도 방법은 아니지만, 그들이 필수로 가지고 다니는 흰 지팡이를 사용할 경우 단독보행 보조설비로서의 기능을 인정받았다. 그 후, 차차 전 세계로 널리 퍼지게 되었고 현재의 보도블록 생활환경에 자리매김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1981년 한국시각

장애인복지재단이 도입해 최초로 실내용 점자 블록을 제작했으며, 1988년 서울패럴림픽을 계기로 외부 설치를 본격화했다.

### 유도 블록이 노란색인 이유

오늘날의 유도 블록은 시각장애인의 보행 특성을 고려해 설치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은 시력 대신 모든 잔존감각으로부터 수집되는 정보를 분석하고 통합해 보행 정보로 활용한다. 즉 주위의 물체, 소리, 냄새 등 쉽게 포착할 수 있는 감각적 단서가 랜드마크가 되는 것이다. 이들은 랜드마크를 통해 목적지로 방향을 정하면 다음 랜드마크에 도달할 때까지 직선으로 이동하는 편이다. 이러한 시각장애인의 보행 특성을 고려해 설치한 유도 블록의 특징은 무엇일까. 바로 블록의 형태, 재질, 색깔 등이다.

먼저 형태 면에서는 크게 선형 블록과 점형 블록으로 나뉜다. 선형 블록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방향의 지표가 되는 일자 모양으로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점형 블록은 36개의 돌출점을 가지고 있다. 계단, 승강장, 장애인용 승강기 등 위험요소의 전면 또는 선형 블록의 시작과 끝에 배치된다. 정리하자면, 선형 블록이 전진과 방향을 뜻한다면 점형 블록은 멈춤과 방향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은 지팡이를 이용해 방향을 확인하고 위험요소와 장애물, 안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유도 블록의 재질은 외부에는 고강도 콘크리트와 인조대리석을, 내부에는 자기질과 세라믹 재질을 두루 사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도 블록은 왜 노란색일까. 시각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따라 빛을 전혀 볼 수 없는 전맹과 시력이 0.04 미만인 저시력으로 구분한다. 우리나라 저시력 시각장애인은 10% 정도이며, 이들은 빛과 색을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파장이 길고 주목성이 높아 사람 눈에 가장 잘 띄는 노란색을 사용한다.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의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유도 블록의 전체 색상은 원칙적으로 노란색을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 시각장애인을 상징하는, 흰 지팡이

더불어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활동 보조기구는 ‘흰 지팡이’다. 지체장애인이거나 노인이 보행할 때 사용하는 지팡이와 구별해야 하기 때문. 이를 위해 1980년 10월 15일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WBU)는 ‘흰 지팡이의 날’을 제정했다. ‘시각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인 관심과 배려를 이끌어 내자’는 취지에 따라서다. 또한 흰 지팡이는 동정이나 무능의 상징이 아니라 자립과 성취의 상징을 뜻한다.

최근에는 IT기술과 GPS와 같은 다양한 첨단 기술로 시각장애인들의 편리한 보행을 돕는 장치들이 등장하고 있다. 도우미로봇, 시각보조기기, 팔꿈치도움, 시각장애인 차량봉사센터 등이다.

장애인이 편리한 세상은 우리 모두에게도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준다. 우리는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주는 유도 블록, 그리고 흰 지팡이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미관상의 이유로 유도 블록을 바꿔서는 안 되며, 꼭 필요한 장소에 올바른 방법으로 설치하여 이들의 안전한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의료서비스 지원가

##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병원에 휴먼서비스를 더하다

코로나19가 기승이던 시기, 우리는 의료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다. 또한 의료계의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의료진을 돕는 의료서비스 제공자도 상당수 늘어나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당시 공단은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장년·중증·여성 장애인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가’라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 직군이 만들어진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살펴본다.

글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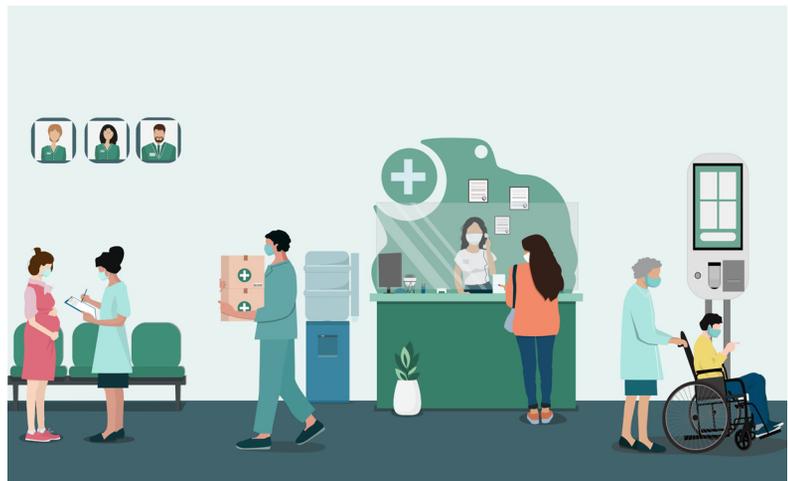
\* 공단의 직업영역개발 사업보고서를 재구성해 소개합니다.

### 승승장구 중인 의료서비스 산업에서 일자리 창출

지난 코로나 시국을 지나오면서 현재까지 주목받고 성장 중인 산업을 꼽으라면 단연 의료서비스 산업이다. 사람들은 전례 없는 감염병을 겪으면서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기 시작했다. 또한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수명이 길어진 만큼 병원을 드나드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의료서비스 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3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50만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18.4%이며, '25년에는 20.6%로 늘어나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의료서비스 종사자가 더 많이 필요해질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공단은 코로나 환자가 폭증했던 지난 '21년부터 과중 업무로 번아웃을 겪고 있는 의료진들을 눈여겨봤다. 그리고 장년, 중증, 여성 장애인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가’라는 신규 일자리를 개발했다. 의료서비스 지원가는 대학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병원 이용 고객이 편리하게 병원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해 주는 직무다.

이는 지친 의료진에게 주 업무인 의료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 주고, 일자리가 시급한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병원 이용객에게는 병원 이용 시 불편사항을 빠르게 해결해줄 일석삼조의 직군이라 할 수 있다.



### 서류를 읽고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발굴

사실 공단은 이전에도 의료기관과 협업하여 개발한 직무가 있다. 대표적으로 병원보조원, 휠마스터, 치과병원보조원 등이 그것이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의료기관에 장애인 진입이 많이 쉬워졌지만, 아직도 많은 의료기관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도달하지 못한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공단은 의료서비스 지원가라는 직군이 더 많은 의료시설에 장애인 일자리로서 확실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방안을 고심했다.

먼저 선행연구를 몇 차례 진행한 후, '키오스크(KIOSK)'에 주목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어느 순간 터치 스크린 방식의 무인 단말기인 키오스크가 우리들의 생활반경 곳곳에 자리를 잡았다. 병원도 마찬가지. 하지만 키오스크는 사용법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편리한 기계지만, 고령자나 장애인들과 같은 정보취약 계층에게는 불편함을 넘어 일상생활에 위협을 느낄 정도라고. 언론에서도 이러한 '디지털 격차'와 '디지털 문맹'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하기도 했다. 공단은 여기에 착안해 의료서비스 지원가라는 직무를 고안해낸 것이다.

이로써 병원에서 키오스크 사용법 등을 안내하는 디지털 조력, 진료실 안내와 이동을 지원하는 이동 지원, 건강증진센터 방문객의 이용 안내 및 비품 정리정돈, 약제팀 지원 등 의료서비스 지원가 직무의 구체적인 업무를 세부적으로 구상했다. 다음 단계는 이 신규 직무를 구현할 병원과의 접촉이었다.

### 장년·중증·여성 장애인 등 30명 취업 성공!

공단은 우선 경기 남부권역 대표 의료기관인 수원 아주대학교의료원과 협력했다. 이 지역을 담당하는 공단 경기지역본부와 협조해 수원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취약 장애인을 우선 모집 대상으로 선정하고 대상자를 모집했다. 또 사업체 인사복지팀은 지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채용직무 및 채용절차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장애인 채용설명회도 열었다. 특히 중증장애인은 사업체 현장에서 업무를 배우는 공단의 취업 전 프로그램인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을 실시해 '선 배치, 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장애인이 실제 근무할 부서의 관리자 및 부서원 중 1명의 직무지도원도 선임했다. 이들은 지원 장애인의 빠른 직무 습득을 돕고, 취업 후에도 사업체 내에서 멘토 역할을 하며 같이 일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정리하면 참여사업체 선정, 참여장애인 모집 및 선발, 현장훈련, 채용이라는 4단계를 거쳐 총 30여 명의 장애인 지원자가 뽑혔다. 그 결과 디지털 조력자 10명, 안과 이동 지원 1명, 건강증진센터 지원 8명, 중앙공급실 지원 10명, 약제팀 지원 1명 등 많은 인원이 취업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 성과는 공단의 직무개발을 통해 장애인 고용제안의 가능하게 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의료서비스 지원가 직무의 대표 세부 직무인 '디지털 조력자'는 병원뿐만 아니라 영화관, 카페, 관공서, 식당, 은행 등 비대면 무인화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운영되는 다양한 기관에서 적용하고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성과다. 앞으로 장애인고용이 가능한 새롭고도 참신한 일자리가 개발되어 장애인 일터가 더 많이 늘어나기를 희망한다.

#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하고 싶은 일이 생깁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맞춤훈련센터 박준규 주임

출근 전까지 매일 8시간 투석으로 아침을 여는 박준규 주임. 어느 직장인처럼 출근길을 고되게 여겼던 그가 ‘제9회 일상 속의 장애인- 스토리텔링 공모전 고용부문’에 출품했고, 우수상을 받으며 더 깊고 짙은 일상의 원동력을 얻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고 있다는 박준규 주임을 만나고 왔다.

글 편집부 / 사진 정택



‘제9회 일상 속의 장애인- 스토리텔링 공모전 고용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박준규 주임

**Q. 안녕하세요, <장애인과 일터> 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일하고 계신 서울맞춤훈련센터에서 어떤 계기로 일하게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맞춤훈련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준규 주임입니다. 회계, 보안, 자산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건강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면서 만성신부전으로 신장장애를 갖게 되었어요. 이후에 두문불출하는 생활을 지속하다가 각성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취업’을 키워드로 검색하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알게 되었고, 지금 일하고 있는 이곳 취업지원부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번호를 남겨뒀어요. 혹시라도 여기서 채용공고가 나면 꼭 알려주셨으면 한다고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장애인 기간제 채용을 해서 근무하던 중에 당시 대리 직급이었던 구영진 과장님께서 공단 채용에 대한 언질을 주셔서 지원하고 면접까지 봤습니다. 다행히 합격해서 2020년 12월부터 근무를 시작했어요.

**Q. 올해로 딱 찬 3년 차 직장인이시군요. 주임님의 하루 일과가 어떠신지 궁금해요.**

투석을 중심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전 6시 반에 일어나 전날부터 연결해둔 투석기를 제거하고 정리합니다. 만성신부전 판정을 받은 이후에 식이관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심 식사를 위한 도시락도 준비하고요. 8시 반엔 출근을 완료해서 퇴근하는 2시까지 제게 주어진 일들을 차근차근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직자들의 훈련을 담당하는 센터다 보니 훈련에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고, 지출이 나가는 날은 서류를 정리해서 지역본부 쪽으로 보내 출고를 하는 일을 합니다. 이 외에 정보보안, 자산 등록 등의 업무도 두루 담당하고 있습니다.

**Q. 매일 8시간에 걸친 투석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업무와 병행했을 때의 어려움은 없으실까요?**

신장이식을 희망하고 있기에 뇌사자 장기이식을 신청하고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로 치료 방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상 유지를 위한 투석을 현재 7년째 이어오고 있어요. 업무적으로 특별히 어려운 건 없지만 체력이 많이 떨어지거나 무거운 물건을 못 드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저녁에 늦게 자면 투석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송구하게도 센터 회식은 저 때문에 저녁이 아닌 점심에 하고 있습니다. (웃음)

**Q. 근무지 환경은 어떤 편인가요? 동료분들과의 관계도 궁금합니다.**

정말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서울 중심부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한 건 물론이고요, 장애인분들이 많이 오시는 만큼 배리어프리 요소도 잘 갖춰진 곳이에요. 그리고 병원에 가거나 병가를 쓰는 데 있어 센터장님과 동료분들이 배려해 주셔서 속히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고요. 저에겐 최고의 근무지와 동료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Q. 최근 ‘제9회 일상 속의 장애인- 스토리텔링 공모전 고용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으셨어요. 출품한 작품 제목이 ‘젊은 투석환자의 내일’이었죠?**

네 맞아요. 장애를 얻은 지 7년, 그리고 취업한 지 3년의 회고를 담은 에세이예요. 직장인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약간 헤이해진 마음이 없지 않았는데 글을 쓰면서 입사 당시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했던 그 마음과 다시금 만나게 되었어요. 이 마음을 되찾은 게 가장 큰 소득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어머니도 같은 공모전의 일반부문으로 출품하셨지만 아쉽게도 수상은 못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수상 소식에 함께 기뻐해 주신 그 마음도 너무 따뜻했습니다.

**Q. 신장장애를 가진 동료들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고용주나 직장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당부의 말이나 부탁의 말이 있을까요?**

신장장애는 두 부류로 나뉘어요. 팔로 혈액투석을 하거나 복강으로 복막투석 하는 방법이 있어요. 혈액투석은 이틀에 한 번씩 하게 되는데 전일제 근로자가 혈액투석을 하게 되면 새벽에 투석을 하거나 휴가를 내서 하기도 해요. 사실 혈액투석을 하면 그날은 뭔가를 하기 힘들어요. 팔도 평소보다 두꺼워지고 무거운 것도 못 들고요. 복막투석도 저는 저녁에 하지만 일상 중에 6시간마다 한 번씩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회사에 먼지가 덜하고 바람 이동이 덜한 투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기업도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차에서 하는 분들도 계세요. 굳이 생겨서 복막염이 생기면 최악의 상황엔 복막투석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기업체에서 환경적인 부분을 조금이나마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준규 주임이 진지한 모습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모습

**Q. 앞으로 주임님의 계획과 목표를 말씀해 주세요.**

건강관리를 잘해서 이식할 때까지 공단에서 열심히 일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 일상 루틴이 집, 회사, 집, 회사이거든요. 이제는 조금 벗어나서 기타나 드럼 같은 악기를 배워보면 어떨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글을 다양한 장르로 써서 개인적으로 책을 내보거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글을 좀 더 많이 다양하게 써보는 게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Q. 구직과 취업을 앞둔 장애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장애를 갖게 된 후, 세상과 마주할 용기가 없던 시기가 있었어요. 제가 가둔 세계를 깨고 나와서 맞춤형훈련센터에 왔을 때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취업알선을 해주시는 걸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오시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할 수 있다'라고는 장담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찾을 수 있어요.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하고 결국엔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각 지역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에 문을 꼭 두드리길 권합니다.



미소를 짓고 있는 박준규 주임

# “제약업계 최초 장애인표준사업장, 상생으로 앞서 갑니다.”

## 생명누리, 제약 분야 장애인 일자리를 발굴하다

지난 2020년 1월, JW중외제약과 JW생명과학 공동출자로 제약업계 최초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생명누리가 문을 열었다. 그리고 꼬박 3년, JW당진생산단지에서 어느덧 과천 신사옥까지 확장과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비결을 묻자 생명누리는 **성실함 그리고 책임감**이라고 대답했다.

글 편집부 사진 정택

다함께 미소를 짓고 있는 생명누리 직원들



### 후원에서 고용으로, 상생의 품을 넓히다

통 창 너머로 가을 햇살이 따사로이 쏟아지는 과천 JW그룹 사옥 1층, 점심시간을 맞아 사내 카페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평일에도 발길이 끊이지 이어지는 이곳은 생명누리가 운영하는 카페누리 2호점. 제약회사 특성상 외부 고객과의 미팅이 자주 이뤄지는 데다,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자리한 위치 특성상 외부 고객도 많은 편이다. 게다가 매달 새로운 신메뉴 개발로 경쟁력을 강화하며 개점 4개월 만에 탄탄한 고객층을 확보했다. 생명누리의 첫 사업은 지금의 신사옥이 설립되기 전, JW당진생산단지에서 출발했다. JW그룹은 2019년 9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하고 생명누리를 출범했다. 생명누리의 첫 근로자로 사회복지사 1명과 발달 장애를 가진 장애인 10명이 채용됐다. 첫 사업 분야는 단지 내 근로자들의 작업복 세탁과 환경미화. 사회복지사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과 신체적, 정서적 관리 역할을 도맡았고 곧바로 직원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날아들었다. 뒤이어 JW당진생산단지에 카페누리 1호점이 문을 열었다. 3년이 흐른 현재, 생명누리에는 과천 신사옥에 근무하는 문서수발실 직원과 카페누리 2호점 바리스타들을 포함해 총 23명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다.



유진석·권정애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리고 있는 모습

## 생명존중의 가치로 이어온 동행

JW그룹은 '생명존중'을 가치로 지향하며 이전부터 꾸준히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왔다. 2011년부터 장애인 예술가와 사회를 연결하고자, 제약 기업 최초의 장애인 미술공모전인 JW 아트 어워즈를 개최했다. 미술에 소질이 있지만 지원과 교육을 받지 못하는 장애 예술가를 지원하며, 더 많은 장애인에게 보탬이 되는 길을 모색했다.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 끝에서 얻은 답은 직접 고용을 통한 동반성장.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에 이르렀다. 이밖에 유니버설 디자인 창작 공간 프로젝트, 걸음기부를 통한 보행 장애인 지원 등 다양한 활동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처음에는 '장애인 근로자가 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있었다. 게다가 사내카페와 문서수발실 근무 모두 대면 서비스로 이루어져 직무환경 구성에 더욱 꼼꼼히 신경 썼다. 과천 신사옥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케어를 담당하는 김정훈 매니저는 우려가 생각보다 빨리 확신으로 바뀌었다고 대답했다. 근로자 모두 이미 여러 직무를 수행했던 경험이 있던 데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바리스타 교육을 수료하며 실력과 자신감을 갖췄기 때문이다.

## 성장을 견인하며, 미래를 함께 그린다

특히 카페누리 2호점은 사옥 이전으로 첫 개점을 준비하며 우여곡절도 많았다. 서로 다른 곳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이수했기 때문에 음료를 다루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도 했고, 잘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실수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때마다 힘이 된 건 직무상담과 관리를 맡은 김정훈 매니저의 격려와 JW사옥 직원들의 든든한 응원이었다. 우편과 택배, 행낭이 드나드는 문서수발실 역시 자칫 배송 실수나 분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적극적인 태도와 JW 직원들의 배려와 이해가 만나 극복할 수 있었다.

'커피가 맛있네요', '카페누리 바리스타분의 친절한 미소에 오늘 하루 힘을 얻었어요'라는 피드백을 들을 때마다 직원들의 자신감은 오늘도 쑥쑥 상승하는 중이다. 특히 주변 카페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개발한 신메뉴가 좋은 반응을 얻을 때, 뿌듯함을 느낀다. 매달 새로운 메뉴를 출시하는 '월간 카페누리'는 JW직원뿐만 아니라 인근 고객들이 기대하는 이벤트 중 하나. 여기에 친절과 적극적인 서비스가 생명누리의 지속가능한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다.

김정훈 매니저는 카페누리 2호점이 이제 개점 4개월 차를 맞이한 만큼 안정적인 안착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생명누리는 앞으로도 제약회사에 알맞은 직무 개발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다. 특히 제약회사 분야 선발주자로서 기업 특성에 맞는 직무 발굴에도 관심이 많다. 업계 최초라는 수식어에는 늘 그 만큼의 기대와 든든한 믿음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JW그룹은 제약 분야의 새로운 길을 연다는 책임감과 '생명존중'이라는 사명감으로 장애인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인류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만든다'는 JW의 미션이 더 많은 장애인 근로자와의 동행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 미니 인터뷰

김정훈 매니저



#### "열정을 펼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사회복지사로서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직무지도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들과 함께한 지 6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저희 서비스가 긍정적 피드백을 받을 때 늘 뿌듯함과 행복을 느낍니다. 생명누리를 더욱 발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저도 사회에 나오기 전에는 늘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닌 제 능력을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펼치고 싶었고요. 그런 열정을 펼칠 기회가 간절했습니다. 더 많은 기회가 장애인 근로자에게 주어지길 바랍니다. 저도 곁에서 그 기회를 함께 만드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권정애 바리스타



#### "나만의 카페를 여는 그날까지."

지난 5월 첫 근무를 시작했는데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어려운 점도, 힘든 점도 있었지만 돌아보면 좋았던 기억만 남아 있어요. 제 업무에 익숙해질수록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료를 만들거나 개발하는 것도 재미있지만, 손님과 만나는 매일이 즐거워요. 사실 바리스타가 되기 전에는 내성적이고 낯을 가리는 편이었는데요. 늘 찾아와 칭찬과 격려를 건네 주시는 고객 덕분에 자신감 넘치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카페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이 배우고 노력하겠습니다. 언젠가 저만의 카페를 차릴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요!

유진석 바리스타



#### "바쁜 일상 속 편안한 쉼과 맛있는 음료를 전합니다."

이전에도 다양한 일을 해봤는데, 이곳에서 근무하며 비로소 소속감과 함께 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6월 1일 카페가 공식 오픈하기 전, 서로 힘을 맞추고 문제를 해결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실수도 많이 줄고, 업무도 수월하게 느껴집니다. 그 과정에서 기다려주고 믿어준 JW그룹과 생명누리 다른 직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실수하면 당황하고 마음이 조금해지지만, 일이 물 흐르듯 착착 진행되면 그만큼 즐거울 때가 없어요. 앞으로도 저희 카페를 찾는 분들에게 달달하고 따뜻한 음료로 행복을 전하고 싶습니다.

전홍일 사원



#### "평생 직장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문서수발실에는 매일 새로운 택배와 우편물이 오고 갑니다. 그만큼 택배사와 우체국 배송기사님들, JW직원을 자주 마주하는데요. 늘 밝게 인사해주시고, 격려와 칭찬을 건네셔서 자신감이 늘고 있어요. 다가올 12월이 되면 문서수발실에서 업무를 도와주시는 분이 없어 저 혼자 이어가야 하는데 잘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긴 하지만요. 무엇보다 저희 회사 직원식당이 정말 꿀맛인데요. 열심히 일하고 맛있는 점심을 먹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매일이 참 소중한 즐겁습니다. 정년퇴직의 그날까지 생명누리와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습니다!

## “그냥 자리가 멀어도 의지되는 그런 사이입니다.”

경북지사 기업지원부 김혜석 대리, 장윤지 주임,  
취업지원부 심상훈 주임

서로 친하나는 질문에 그저 웃던 세 사람. 그런데 의지가 되냐고 묻자, “네!” 하고 셋이 한 목소리로 대답한다. 직장에서의 관계라면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많을 텐데. 의지가 된다는 건 서로 믿는다는 뜻이기도 하니 겉바속촉한 세 사람의 관계를 가족공예를 하면서 알아봤다.

글 편집부 사진 정택



가족 키링을 만들기 위해 공방을 찾은 장윤지·심상훈 주임과 김혜석 대리(왼쪽부터)

## 다르지만 같고, 같지만 다른 세 사람

공방 문을 열고 들어온 세 사람의 눈엔 낯선 곳에 왔다는 적신호가 작게 빛나는 것 같았다. 키링을 만들 거라는 선생님의 안내가 이어지고, 다양한 질감과 색을 띤 가죽들이 즐비한 선반 앞에 서고 나서야 긴장의 끈을 살짝 놓은 듯했다. 키링 형태가 무너지지 않도록 얇은 가죽은 배제하고 두꺼운 가죽을 고르라는 선생님의 조언이 이어졌다. 고민 끝에 김혜석 대리는 하늘색, 심상훈 주임은 갈색, 장윤지 주임은 베이비핑크색 가죽을 골랐다. 각자 취향에 따라 골라온 것이었겠지만 어색해하는 세 사람의 관계와 섞이지 않는 가죽의 색들이 어쩐지 닮아 있다고 느껴졌다.

“가죽과 가죽 사이에 구겨지지 않도록 보강재 역할을 하는 종이를 넣어줄 거예요, 이 세 겹이 잘 붙을 수 있도록 사이사이 본드를 얇게 발라주세요.”

선생님의 설명이 떨어지기 무섭게 헤라에 본드를 묻혀서 C자 형태로 눌러 바르는 세 사람. 본드가 뭉치지 않도록 잘 펴 바르는 게 미션이었다. 시원시원하게 바르는 심상훈 주임이 제일 먼저 끝내고, 그 다음엔 장윤지 주임, 가장 섬세하고 꼼꼼하게 바르느라 마지막을 장식한 건 김혜석 대리였다. 정말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라 느껴져 “세 분이 좀 안 친하죠?” 하고 짓궂은 질문을 던졌다. 대답 없이 그저 웃어넘기는 세 사람. 의지가 되는 사이냐는 질문에는 함께 ‘네’하고 한 목소리로 답했다.

“셋의 업무 영역이 서로 달라서 업무적으로 얽히거나 하는 일이 잘 없어요. 각자의 일을 묵묵히 하는 스타일 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오다가다 툭 쳐서 돌아보면 간식으로 힘을 주는 사람, 그리고 괜히 자리가 멀어도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사람. 그냥 그런 존재들인 것 같아요.”

어느새 모든 공정의 마지막 순서를 담당하게 된 김혜석 대리가 본인들의 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선 당당, 망치질이 한창이다. 겹겹이 붙인 가죽 위에 동그란 커터를 올리고 망치로 쳐서 500원짜리 동전보다 조금 더 큰 동그라미 가죽을 찍어내는 공정이었다. 장윤지 주임과 심상훈 주임이 망치를 내리치면서 남은 긴장을 모두 훌훌 털어버린 미소를 보이고 있었다.

## 벚꽃 보러 가는 트리오

김혜석 대리와 장윤지 주임은 입사 동기면서 같은 기업지원부 소속이고, 심상훈 주임은 취업지원부 소속이다. 같은 부서 내에서도 김혜석 대리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을, 장윤지 주임은 회계 및 구매 계약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심상훈 주임은 장애인 구직자들의 취업을 돕는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 업무를 해나가고 있다. 세 사람이 친해진 계기는 특별히 ‘없다’. 결이 비슷한 사람들이라 한두 번 점심을 먹고, 그 인연으로 저녁도 먹고 하는 사이가 되어버렸다. 세 사람 중 가장 늦게 경북지사에 온 심상훈 주임은 그래서 두 사람이 고맙다. 먼저 말을 걸어주고 함께 뭘 하자고 제안한 것도 두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세 사람의 공통된 추억은 바로 ‘벚꽃 나들이’였

다. 내년에도 같이 벚꽃을 보러 갈 예정이라고.

동그랗게 잘린 가죽 단면 3mm 안쪽에 바느질 안내선을 컴퍼스로 그려낸다. 두께감 있는 가죽 두 장이 붙어 있어 바느질할 수 있는 구멍을 미리 뚫어주는 작업으로 이어진다. 포크와 닮은 사선 그리프를 잡고 망치로 탕탕 내러치면 가죽에 사선 구멍이 남는다. 이제 진득하게 바느질 작업으로 돌입, 이제는 각자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됐다. 바늘구멍에 각자 가죽에 맞는 색의 실을 꿰며 대화를 이어간다.

“기술 가정 시간에 한 땀씩 떠본 기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윤지 주임님도 기술 가정 시간이 있었어요?”

심상훈 주임이 장윤지 주임에게 물어본 이유는 교육과정이 다르기 때문. 올해 21세인 장윤지 주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입사한 지사의 실질적인 막내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막막해 긴장의 연속이었지만 특유의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하나씩 하나씩 정면 도전하며 업무를 익히고 있다고.

“심상훈 주임님은 제가 당이 떨어진다 싶으면 어떻게 아시고 달달한 간식을 주고 가는 간식 응원러고, 김혜석 대리님은 제가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고민 해결사 역할을 해주고 계세요. 든든하고 감사한 두 분 덕분에 매일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바느질 구멍에 실이 점선을 그리며 두 가죽을 더 잘 그리잡는 형태가 완성됐다. 세 사람이 특별한 계기가 없어도 매일매일의 유대를 통해 오늘 바느질을 함께하게 된 것처럼. 한 땀 한 땀 의지가 쌓이고 추억이 쌓이는 시간이 무르익고 있었다.

## 늘 그래왔던 것처럼 올해도 무사히

바늘구멍을 잘못 찾아 넣거나, 실이 엉키면 다시 차분하게 돌아가 해결한 세 사람. 장애인들이 공단을 찾을 때의 심정과 같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심상훈 주임은 시니어 장애인 구직자와 적합한 일자리 매칭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국가 사업과 연계시켜 장기 근속하는 결과를 만들어냈고, 김혜석 대리는 휠체어를 자동차에 실어주는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해드린 일을, 장윤지 주임은 고용장려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사업이 장애인을 근속할 방법이 된다는 걸 깨달으며 보람을 느낀다고 답했다. 더 좋은 길을, 또 그 길이 아니라면 다른 좋은 길을 끊임없이 제시해줄 든든한 길잡이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다. 비록 돌아가는 일이지만, 엉킨 실은 풀고, 잘못된 한땀은 다시 꿰면 되듯이 장애인 구직자들이 더 좋은 스텝을 밟아나갈 수 있도록 세 사람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오늘도 해나가는 중이다.

재단을 하느라 가죽 보풀이 한껏 일어난 테두리에 사포질을 해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가죽과 비슷한 색상의 염료를 붓으로 칠해 마무리하는 세 사람. 부자재인 은색 링을 가죽에 끼워 나사를 돌리니 아기가기한 가죽 키링이 완성됐다. 세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눈높이에 키링을 들고 딸랑딸랑 흔들어 보였다. 올해 고마웠던 사람,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용으로 줄 예정이라는 키링에 잠시 마음을 담아본다.

“저, 심상훈 주임님, 김혜석 대리님 모두 올해 업무적으로 잘 마무리하고 장애인 근로자분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제 슬슬 내년을 준비하는 시즌이니 각자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무사히, 내년은 힘차게! 파이팅!”

### 🎙️ 체험 소감 한마디

경북지사 기업지원부  
김혜석 대리



“열쇠 많으신 어머니께  
선물 드릴 거예요.”

가족 상품을 그냥 봤을 때는 몰랐는데 실제로 이렇게 섬세한 공정들을 거쳐 완성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들도 바깥에선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일해야겠다, 그래야 느슨해 보이지 않겠구나, 생각했어요. 저라는 사람에 대한 개성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한 저만의 개성을 발굴해서 끝까지 잘 다듬어 가는 것,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굽히지 않는 것. 그래서 잘 발현해 온전한 저를 완성해 나가고 싶습니다. 오늘 만든 키링은 어머니께 선물로 드리려고요.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북지사 기업지원부  
장윤지 주임



“늘 도움 주신 옆자리  
대리님께 선물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키링을 많이 쓰는 편이 아니라서 어떤 분께 드려야 하나 고민했는데요. 옆자리 박지인 대리님이 생각해서 색도 대리님이 좋아하는 색으로 선택했습니다. 제가 힘들어 할 때마다 도움과 조언, 격려를 아끼지 않으셔서 제일 크게 의지하는 분이예요. 정성을 듬뿍 담았으니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레고 만들기를 좋아하는데 가죽공예는 또 다른 재미가 숨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앞에서 꼬이면 뒤에서도 꼬이니 신중하게, 하지만 실수해도 다시 만회할 수 있다는 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좋은 시간 마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경북지사 취업지원부  
심상훈 주임



“초등학생 조카에게  
주고 싶어요.”

늘 좋은 게 생기면 제게 나눠 주고 싶어 하는 우리 조카에게 선물하고 싶어요. 지금 이 키링을 받기에는 너무 어릴 수 있지만 자라면서 아 우리 삼촌이 날 위해 이런 걸 손수 만들었구나, 하고 깨닫는다면, 그리고 제 마음이 전달된다면 정말 고마울 것 같습니다. 늘 긍정적인 윤지 주임님과 제가 배울 게 많은 혜석 대리님. 제가 회사에서 많이 의지하는 두 분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낸 것 같아 감사했어요. 제가 평소엔 부끄러워 내색을 잘 못하지만 두 분 덕분에 올해도 재미있게 잘 보냈다고, 늘 든든히 옆에 계셔서 고맙다고 지면을 통해 전하고 싶습니다.

##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재난안전’ 바로 알기

근로환경에서 근로자의 재난안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두말할 것 없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에 공단에서는 장애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재난안전 리플릿을 제작하고, 재난안전 교육 영상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의 재난안전을 위해 숙지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자.

글 편집부



### 장애인 근로자의 재난안전 준비절차 4단계

안전 교육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할 것 없이 모두가 알아둬야 할 중요한 정보다. 근로자는 모든 조건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으며, 근로자의 안전은 그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인간권이기도 하다. 특히 몸이 불편한 장애인 근로자 재난안전은 장애인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작업 환경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장애인 근로자 재난안전 준비절차 4단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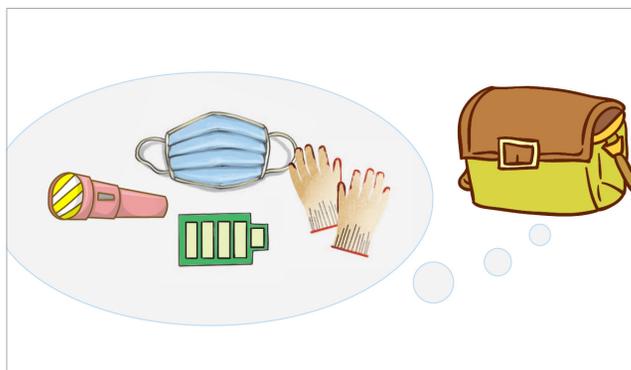
**1단계는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에 대한 이해다.** 우리나라에는 총 15개의 장애 유형(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심장, 신장, 호흡기, 장루요루, 간, 뇌전증, 정신, 지적 및 자폐성 등)이 있다. 재난안전 준비 시 신체장애, 인지장애를 고려하여 준비가 필요하다.

**2단계는 대피 계획의 수립을 통한 대피 준비다.** 장애인 근로자와 비장애인 근로자 모두 참여하고(근로지원인이 있을 경우, 근로지원인도 참여), 장애인 근로자의 대피 시 필요 사항을 인터뷰한다. 또한 장애 유형별 특징을 반영하여 대피 준비를 해야 하며, 개인안전대피계획(PEEP, Personal Emergency Evacuation Plans)을 수립한다. 대피지원인은 2명 이상을 지정하고 재난 상황 인지시스템, 의사소통 방법 표시, 대피 시 필요한 시설 장비 및 보조기기 준비, 대피 통로 2가지 이상 표시 등을 해야 한다.

**3단계는 대피 교육이다.** 장애인 근로자와 비장애인 근로자 모두 참여(근로지원인이 있을 경우, 근로지원인도 참여)하고, 개인안전대피계획(PEEP)을 지참 후 이를 활용하여 교육한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 및 인력을 활용하여 교육(시각, 청각, 발달 장애를 고려한 교육자료 활용)하며 추가로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등을 알아둔다.

**4단계는 시설장비 준비 및 정기적인 실전연습이다.** 전 유형 공통 확인사항으로 대피공간 확인, 대피통로 확인, 대피 안내표지 확인, 대피시설 확인, 재난상황 인지시스템 등을 확인한다. 이와 함께 개인안전대피계획 확인, 대피지원인 2명 이상 확인, 근로지원인 확인, 장애 유형을 고려한 대피장비, 보조기기 시설장비 등을 확인한다. 비상용 마스크, 손전등, 휴대전화 배터리 등이 담긴 비상용 키트도 준비한다.

실전연습은 1년에 2회 이상 정기적인 연습이 제일 중요하다(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대피지원인 · 근로지원인과 함께 월 1회 정기적인 실정 대피연습이 제일 중요). 또한 각종 공간, 통로, 표지, 시설, 대피 지원인 연락처 등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장애 유형에 따라 대피장비 활용 연습 등을 병행한다. 이 역시 개인안전대피계획(PEEP) 지참 및 활용과 비상 연락처 알아두기 등을 포함한다.



비상용 마스크, 손전등, 휴대전화 배터리 등이 담긴 비상용 키트 준비



대피계획은 장애인 노동자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점자자료, 음성파일 등)로 제공

## 사업주의 대피계획 준비

다음으로는 사업주의 대피계획 준비다. 먼저 사업주는 장애인 노동자가 대피 시 필요한 지원사항을 파악하고 준비하고,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대피 지원내용을 포함한 대피계획 수립한다. 대피계획과 지원사항 등은 장애인 노동자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세심하게 제공(전자자료, 음성파일, 그림파일 등)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대피에 필요한 지원사항 점검이다. 일반적인 점검사항으로는 대피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대피지원인이 지정되었는지, 출입문 방화구획 등 시설이 준비되었는지, 장애 유형별 소통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비상경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대피교육을 위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추가 점검 및 점검 사항으로는 장애인 노동자 개인의 특성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대비한다.

세 번째는 대피지원인 지정이다. 장애인 노동자의 동료 중 비상상황 시 장애인 노동자의 대피를 도와줄 대피지원인 2명 이상을 지정(대피 시 지원이 필요 없는 장애인 노동자의 경우 지정 불필요)하고 근로지원인이 있을 경우, 근로지원인을 포함하여 대피지원인을 지정한다. 장애인 노동자의 장애 유형이나 대피 방법에 따라 대피지원인을 3~4명 지정해야 할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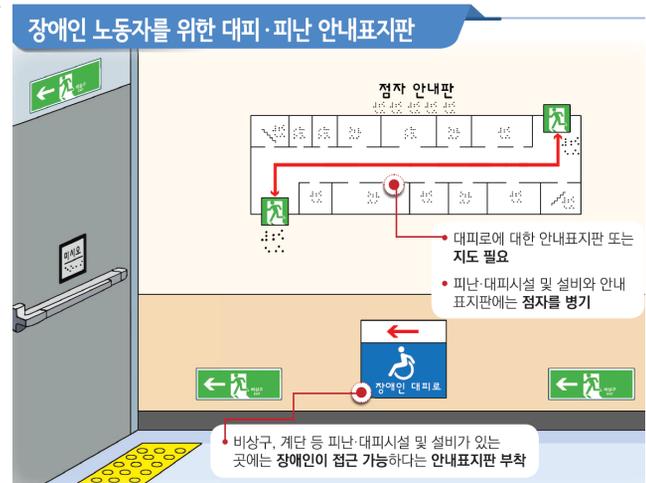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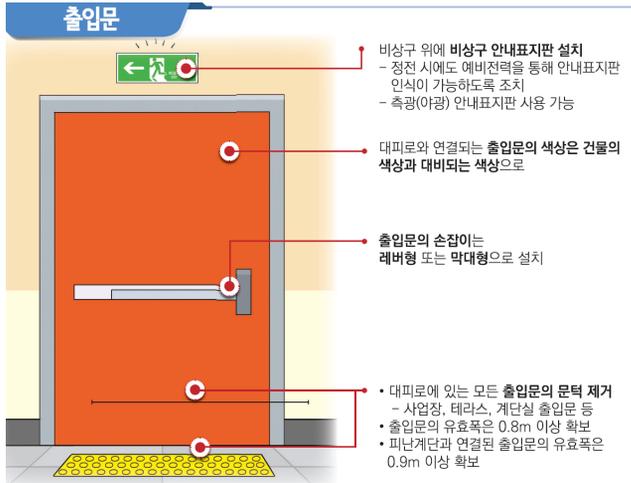
## 장애인 노동자의 대피계획 준비

다음은 장애인 노동자 입장에서의 구체적인 대피계획 세우기다. 장애인 노동자는 대피 시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사업주에게 요청한다. 대피 시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대피계획을 수립한다.

대피계획에 대피 시 지원받은 내용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소, 대피지원인의 연락처, 대피로 등의 내용을 포함해 작성해두는 것이 좋다. 대피지원인은 2인 이상, 대피로는 2곳 이상 복수가 되도록 계획 수립한다. 근로지원인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지원인의 역할도 계획에 포함한다.

두 번째로는 대피 준비하기다. 비상시 활용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 사전 확인 필요(119, 대피 지원인 연락처 등)하다. 또한, 재난 대피 시 필요한 대피시설 및 대피장비의 사용법을 사전에 숙지(대피용 의자 등)한다. 대피계획에 따른 대피로를 숙지(평상시 출퇴근을 통해 익혀두는 것이 필요)하고, 근로지원인이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근로지원인과 함께 출퇴근 시 대피로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을 수시 연습한다. 비상용 마스크 장갑, 휴대용 손전등,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 등이 담긴 비상요 키트를 준비하여 대피 시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대피하기다. 위험시 대피를 잘하기 위해서는 화재경보기, 안내방송, 냄새 등을 통해 비상상황에 재빨리 파악한다. 비상상황 인지한 후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비상 상황임을 신속히 안내한다. 또 대피지원인과 사전에 약속한 장소나 새로운 장소를 정해 만나고, 언어장애가 있는 노동자는 사전에 대피 지원인과 정한 방법으로 연락한다. 대피지원인과 함께 계획된 대피로 중 안전한 대피로를 선택하여 대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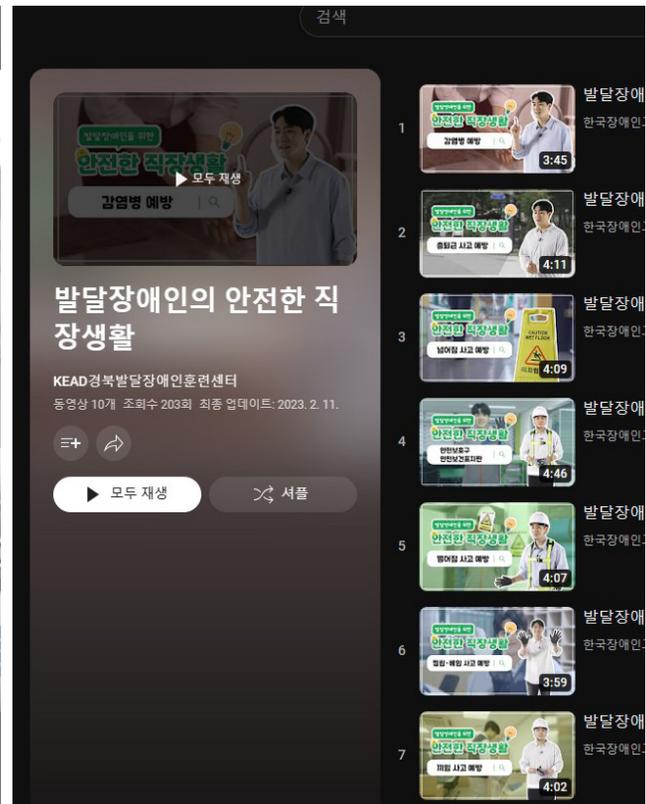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출입문 +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안내표지판

## 유튜브 교육 영상 시청하기

공단에서는 장애인 근로자의 안전한 직장생활을 위해 교육 영상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공단 공식 유튜브 (<https://www.youtube.com/@hahaKEAD>)를 통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장애인 근로자 재난안전 교육영상



발달장애인을 위한 안전한 직장생활

## 몽골, 장애인고용 정책에 도전하다 한국식 ‘장애인 근로능력 평가제’ 도입

1992년에 몽골은 사회주의 ‘몽골 인민공화국’에서 민주주의 ‘몽골국’으로 국명을 변경하며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는 국가로 변화했다. 몽골의 인구는 우리나라의 7% 수준인 340만 명이지만 국토면적은 우리나라의 7배로, 세계 10대 지하자원 보유국 중 하나다. 반도체 주요 소재인 희토류의 세계 2위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철, 구리, 금, 석탄, 몰리브덴, 텅스텐 등 다양한 지하자원 또한 풍부하다. 이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몽골은 미국, 러시아, 중국과 자원 교역을 통해 지난 30년 동안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글. 이정주 누림센터 센터장



급속한 발전을 이룬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도시 전경

### 급속히 경제성장 중인 몽골의 장애인고용 정책

코로나19 시기 주춤했지만, 몽골은 2022년과 같이 세계 경제가 불황인 시기에도 5%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다. 올해도 주요 수출품인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어 세계은행은 몽골의 경제 성장률을 6%대로 예측하고 있다. 1인당 GDP 성장도 아래 그림과 같이 가파르다. 2023년은 5,400달러 수준을 예상한다.

이처럼 높은 경제 성장세를 보이는 몽골은 그에 걸맞게 국민 복리를 위한 선진국형 사회정책 도입을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중 하나가 장애인고용 정책이다.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최소한이기는 하지만 몽골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이 높은 편이다. 자본주의를 도입하기 시작한 1996년부터 사회복지종합법을 제정하여 부족한 재원에도 불구하고 현금지원의 기틀을 마련해 두었다. 그 후 경제 성장률이 오름세를 보이던 2005년 11월 사회복지법을 대폭 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무기여 장애수당을 지급하

기 시작했다.

이때 영구적으로 보호와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정의하며 3개월에 한 번씩 생계지원 조건부 현금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종의 수급권인데 특이하게도 장애인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돌보느라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가족에게 지급한다는 점이다. 다소 의아할 수 있지만 1차 집단 중심의 유목 사회라는 몽골의 특성을 염두에 두면 이해가 가기도 한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할 권리가 있는 개인으로 보지 않고, 장애인 한 명으로 인한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공동체 지원 개념이 크다는 점이 이채롭다. 농경과 유목의 다른 생산 기반이라 하더라도 아시아에서는 가족 공동체가 곧 경제 공동체인 문화적 배경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현대 장애인복지의 중요한 요소인 장애인복지의 당사자성을 위협하는 모습은 분명하다. 하지만 장애인을 돌보는 데 필요한 비용을 그 가족들에게 현금 이체하는 방식을 고안한 사회주의적 발상도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비록 국가는 가난할지라도 나름대로 장애인 복지를 구현하려는 후발 개도국의 노력에 애뜻한 지지를 보내게 되는 이유다.



몽골리아의 경제성장 그래프 세계은행(2022)



쾌적한 울란바토르 칭기즈칸 광장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는 가족

## 장애인 인권법 제정, 여덟 가지 목표 설정

몽골의 장애인고용 정책이 전환을 맞은 것은 2017년부터다. 당시 민주당의 ‘할트마 바툴가’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현금성 소득지원 방식보다는 고용을 통한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장애인 정책 역시 장애인 고용 정책을 주된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 Development Bank)’의 지원을 받아 본격적인 장애인 직업훈련과 고용지원 제도 마련에 나섰다. 이후 2021년부터 ADB 기금에서 40만 달러를 지원받았으며 지금까지 장애인고용정책 컨설팅을 받고 있다.

몽골은 1999년부터 근로기준법에 형식적이지만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정의하고 있었다. 1999년 개정 몽골 근로기준법 제111조는 장애인 노동을 정의했는데, 제111조 1항은 5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나 기관

은 정원의 3% 이상 장애인고용 의무를 정하고 있다. 2항은 미고용 시 매달 과징금(고용부담금)을, 3항은 과징금의 액수를 정부가 정하고 이를 기금화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상응하는 시행 체계는 마련하지 못했다. 그나마 구체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동기는 역시 민주당 정권이 2008년 발의된 0 비준하면서다. 관련하여 2016년 장애인 인권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세부 준칙으로 ‘장애인 인권증진 및 개발에 관한 정부 프로그램(National program on promoting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계획하면서 몽골의 장애인고용정책은 본격화됐다. 내용은 장애인이 평등하게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장애인이 유리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스스로를 발전시킬 기회를 늘리며 장애에 대한 대중의 태도를 바꿔 장애 친화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여덟 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① 장애인의 능력 재활의 최대치 달성 ② 동등한 교육 수준에 접근 ③ 장애인고용 촉진 ④ 장애 친화적인 서비스 제공 ⑤정보 및 인프라 접근성 개선 ⑥ 장애인을 위한 일반 데이터 베이스 구축 ⑦ 장애인의 사회적 의사결정 참여 보장 ⑧잠재적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 보장이다.

이러한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몽골은 기존의 ‘사회복지노동부(MSWL, Ministry of Social Welfare and Labour)’를 ‘고용사회보호부(MLSP,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Protection)’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고용 중심의 사회복지를 구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를 기점으로 앞서 ADB의 지원을 받은 약 40만 달러를 가지고 장애인고용, 접근성, ICF 기반 근로능력평가, 사회복지서비스 등 4개 영역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있는 것이다.



발전하고 있는 몽골, 유독 젊은이가 많이 보이는 칭기즈칸 광장



MLSP(고용사회보호부) 투갈릭 인국정책국장의 장애인고용정책에 대한 브리핑 장면

##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한 몽골, 이행경제 국가들에 본보기

장애인고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인의 생산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진단 도구가 필요하다. 근로능력평가표와 직무 배치가 중요한 과제인데 이를 위해 WHO,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를 준거로 근로능력판정도구를 개발하고, 개인별직업재활계획(IEP)을 수립해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라고 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여기에 활용되고 있는 척도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개발한 '장애인 고용서비스 판정도구 개발 연구(홍성두 외)'를 기본 텍스트로 참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전까지 몽골은 장애인고용보다는 장애인연금, 보조도구지원, 휠체어 등 복지서비스 제공이 주류를 이뤘다. 이는 지역사회 의사의 판정에 준하여 제공받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주류를 이룬 것인데 앞으로는 ICF 기반의 근로능력판정도구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와 고용영역을 강조하는 정책을 구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책의 방향이 장애인연금이나 보조도구지원을 넘어 장애인 개개인의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양질의 고용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전환을 모색 중이다.

또한 몽골은 ADB와 일본 JICA로 지원을 받아 2019년부터 시공하여 2023년 몽골의 '다르함(Darkhan)', '둔드고비(Dundgovi)' 등 6개 지역에 장애인 직업재활센터를 완공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전문인력 양성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구축 등은 미비한 상황이다. 현재는 필자를 비롯한 장애인고용전문가, 현지 교수진들은 직업재활센터를 운영할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지 전문가 채용과 관련 인원 채용이 미진한 상황이지만 몽골의 경제성장과 사회정책에 관한 관심에 힘입어 곧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렇듯 몽골을 비롯한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전환을 꿈꾸는 이른바 '이행경제(Transitional Economy)' 국가들에 몽골의 발 빠른 전환 정책은 귀감이 되고 있다. 특히 중국과 같이 사회주의 정치체제는 그대로 둔 채 경제체제만 바꾸는 단일전환 이행경제보다는 몽골과 같이 정치체제(다당제 민주주의로 전환)와 경제체제(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전환) 모두를 바꾸는 '이중전환 이행경제체제'를 추진하는 국가인 베트남, 미얀마, 쿠바, 캄보디아 등에 몽골은 벤치마킹의 대상이다. 마치 몽골이 참고한 우리나라처럼 말이다.



몽골 장애인 단체장들과 장애인고용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



몽골국 장애인고용컨설팅에 참여하고 있는 울란바토르대학 알타 박사(의사)와 필자

# FUN해야 사는 MZ들 “중요한 건 가깝비지!”

저성장 시대, 똑똑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제아무리 고품질에 저렴한 가격, 뛰어난 기능으로 무장한 완벽한 상품일지라도 비슷한 소비를 경험해 온 소비자들의 마음을 흔들지 못한다. 해박한 지식과 단단한 이성으로 무장한 채 불황시대를 살아가는 스마트 편슈머들. 이제 그들의 마음은 ‘감성’ 앞서서만 열리고 있다. 특히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보다 가깝비(가격 대비 재미)를 추구하는 MZ세대는 소비 그 자체의 즐거움을 원한다. ‘편슈머(Fun+Comsumer)’ 마케팅이 여전히 인기를 끄는 이유다.

글 강나경 자유기고가



빙그레우스 더 마시스. 빙그레 인스타그램 제공

## 장수 브랜드들의 이미지 변신

빙그레우스 더 마시스. 지난 2020년 식품회사 빙그레의 SNS 관리자로 처음 등장한 ‘빙그레 왕국’ 왕자의 이름이다. 왕자가 관리하는 SNS 게시판은 MZ들의 새로운 놀이터가 되었고 이는 전설의 편슈머 마케팅으로 회자되고 있다. 빙그레는 ‘빙그레 왕국’이라는 세계관에 제품의 특징을 살린 여러 캐릭터를 등장시켜 단순 제품 홍보가 아닌 브랜드 자산을 구축하는 효과를 거뒀다. 얼마 전 공개된 브랜드 캠페인 영상도 5일 만에 100만 조회

수를 돌파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매력적인 캐릭터와 재치 있는 서사를 브랜드와 치환해 소비자들의 마음을 훔치는 빙그레의 전략은 편슈머들의 오랜 호응을 얻고 있다.

이처럼 장수브랜드들은 젊은 소비자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가기 위해 편슈머 마케팅을 즐겨 사용한다. 뉴트로 열풍과 함께 등장한 대한제분의 ‘곰표’ 제품들도 브랜드의 낡은 이미지를 타계하기 위한 적극적 콜라보레이션의 결과였다. 듬직한 백곰을 앞세운 패딩 점퍼와, 치약, 과자, 밀맥주 등의 큰 성공으로 대한제분의 ‘곰표’는 이제 젊은 세대 사이에서도 익숙하고 친근한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 재밌어서 사고, SNS 인증샷!

편슈머가 기존 소비자와 가장 다른 점은 소셜미디어(SNS)에 ‘인증샷’을 올린다는 점이다. 기업은 제품이 ‘눈소문’을 타고 퍼져 나가는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 당연히 재미있고 특이할수록 SNS에서 인기를 끌 확률도 높아진다. 주로 기존 제품을 변형시켜 새로움을 주거나 타 브랜드, 친근한 캐릭터와의 콜라보로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명랑 핫도그’에서 출시한 통오이를 넣은 ‘오이 핫도그’나 ‘팔도’에서 라면 사리 8개를 넣은 ‘점보 도시락’을 내놓은 것 역시 편슈머들에게 ‘살 거리’, ‘울릴 거리’를 제공하려는 목적이었다. 실제로 두 제품 모두 ‘완판’ 기록을 남겼다. 광동제약에서 출시한 ‘비타 500 잔망루피 에디션’ 역시 출시 이틀 만에 1차 생산량을 모두 팔아치웠다. 피지알볼로는 올해 호요버스의 RPG게임 ‘원신’과 협업을 한 후 전 가맹점 하루 평균 매출액이 250% 증가했다. 게임이 주는 이미지가 프랜차이즈에도 입혀지는 브랜딩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네이밍도 중요한 편슈머 전략 중 하나다. ‘버거킹’이 지난 4월 한정판으로 출시한 ‘콰트로 맥시멈 미트 포커스트드 어 메이징 얼티밋 그릴드 패티 오브 더 비기스트 포 슈퍼 미트프릭 4’는 높은 가격 책정에도 불구하고 론칭 첫 주 예상 판매량의 150%를 돌파했다. 공백과 숫자를 빼고도 39글자가 넘어 메뉴판에 ‘콰트로 맥시멈... (이하 생략)’이라고 표시했는데 이 메뉴판 사진도 SNS에서 인기를 끌었다.

해태 아이스크림은 기존 스테디셀러 ‘바밤바’와 더불어 배 맛 아이스크림인 ‘배뽀뽀’를 출시하고, 지난 만우절 시즌에는 쌀 맛 아이스크림 ‘벼뽀뽀’를 한정 판매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기발한 네이밍이 능사만은 아니다. 편슈머 마케팅으로 비식품과 식품의 다양한 콜라보가 이어지며 안전사고의 위험이 대두됐다. 이 때문에 ‘말포 구두약 초콜릿’이나 ‘딱풀 사탕’처럼 소비자의 착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도 했다. 소비자 좀 웃겨 보겠다고 건강까지 해치게 만들어서는 안 될 일이다.

불황 속 소비심리를 자극하는 편슈머 마케팅으로 기업들은 새로운 판로를 열고 브랜드의 저변을 확대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우후죽순 쏟아지는 편슈머 제품들 사이에서 가짚비를 추구하는 MZ세대의 안목도 높아가고 있다. 재미에만 치중해 별 고민 없이 출시된 단기 화제성 제품이 아닌 지속가능한 제품과의 재미를 원하는 편슈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가짚비’가 중요하다고 해도 장삿속이 너무 빠른 제품에 지갑을 여는 건 정말 재미없는 일이다.

## 작은 한반도 속으로, 강원도 영월 탄광도시에서 관광도시로!

강원도 남부 내륙의 관문인 영월은 1970년대까지 산재한 탄광으로 호황을 누리며 번성했던 도시였다. 그러나 1970년 석탄산업합리화 조치 이후 인구가 급격히 줄기 시작하며 쇠퇴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유치와 열린 관광지 조성으로 관광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글·사진 문화진 여행작가(지체장애)



2009년 40기의 조선 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영월장릉 단종역사관 전경 모습

### 비운의 삶을 산 단종의 무덤, 장릉

조선의 제 6대 국왕, 단종에게는 비화가 있다. 단종이 그의 삼촌인 세조(수양대군)에 의해 사사(賜死)되고 그 누구도 세조의 눈초리가 무서워 그의 시신을 거두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이를 안타깝게 여긴 영월 호장 엄흥도가 어린 왕에 대한 충절을 지켰다. 눈 내리는 어느 밤, 단종의 시신을 거두어 몰래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곳이 바로 장릉이다. 장릉은 높은 곳에 있는 무덤 외에는 모두 평지 흩길이라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산책하기 좋다. 특히 가을에는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들어 굳이 산행하지 않더라도 단풍놀이하기에 그만이다. 또한 장릉은 조선왕릉 중 하나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장애인용 편의시설도 두루 갖춰져 있어 교통약자의 이동이 자유로운 편이다.

## 단종의 눈물과 한이 서린 유배지, 청령포

단종은 20개월도 채우지 못할 만큼 짧은 기간 동안 왕 노릇을 하다가 폐위됐다. 그 후 영월의 오지 청령포로 유배되었다. 자그마한 배를 타고 찾아드는, 섬 아닌 섬인 청령포에서 어린 임금이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지를 생각하면 마음 한편이 쓸쓸해지기도.

배를 이용하지 않으면 누구도 오갈 수 없는 천혜의 유배지인 이곳은 뿌리 깊은 소나무들이 깊은 속을 가리는 장막이 되어 뻑뻑하게 서 있다. 또 단종어가까지 숲 사이로 이어지는 작은 오솔길이 이어지는데 단출한 기와집 한 채와 호위하던 시종들이 사용하던 초가 건물이 복원돼 있다. 아쉽게도 아직 휠체어를 이용해 배를 타기는 어렵다. 그 때문에 휠체어 이용자들은 매표소 입구에서 강 아래를 내려다보며 관람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하지만 청령포 자체가 낮은 곳에 있어, 그저 내려다보는 것만으로도 그곳이 얼마나 오지인지 충분히 느낄 수 있다. 2023년 장릉과 청령포는 한국관광공사 열린 관광지로 선정되었다. 그에 걸맞게 누구나에게나 편리한 여행지가 되도록 시설 개선에 나선다고 하니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된다.

## 영월 관광센터와 올챙이국수

청령포에서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곳에, 눈에 띄는 빨간색 외관을 한 영월 관광센터가 있다. 영월 폐광지역 통합관광을 위해 건립된 센터로 이곳에서는 주로 탄광지역의 관광 루트를 설계한다고 한다. 이곳은 로컬푸드, 카페, 영상과 전시 등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이기도 하다. 특히 먹거리 장터와 인조 잔디가 깔린 옥상카페는 여행객이 잠시 쉬어가기 좋은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저렴하게 로컬푸드를 맛볼 수 있고 장애인용 화장실과 주차장도 잘 갖춰져 있어 영월 여행 시 한 번쯤 들러보기를 추천한다.

영월에 왔다면 서부시장도 둘러보자. 이곳 시장에서는 유명한 올챙이국수를 판다. 올챙이국수는 옥수수 전분으로 죽을 쑤어 바가지 구멍을 통해 찬물이 담긴 자배기에 밀어 내리면 전분 덩어리가 푹푹 떨어지며 묵처럼 변한다. 그 굳은 형태가 마치 올챙이와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강원도 토속음식이다. 올챙이국수 외에도 메밀 전병과 수수부꾸미 등의 지역 별미도 맛볼 수 있다. 이곳 시장은 휠체어로 이동하기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한다. 영월 여행 중이라면 잠시 이곳에 들러 쉬어가도 좋은 추억이 될 것이다.

### ① 장릉

\* 주소 : 강원 영월군 단종로 190 \* 운영시간 : 매일 9:00~18:00(매표시간 17:30까지)

### ② 청령포

\* 주소 : 강원 영월군 남면 광천리 산67-1 \* 운영시간 : 매일 9:00~18:00

### ④ 영월 관광센터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청령포로 126-3 \* 운영시간 : 매일 9:00~18:00(매주 월요일 정기휴무) \* 문의 : 033-375-8986

## 이탈리아 영화, 천국의 속삭임 “남들에게는 없는 너만의 것, 그것을 꼭 지키렴.”

시력을 상실했다는 말은 어떤 사람에게겐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르게 본다는 의미가 된다. 시력의 상실이 아니라 또 다른 감각의 발견이다. 여기 그것을 증명하는 한 소년이 있다.

소년 미르코. 그는 사고로 시력을 상실했지만,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깊고 풍부한 소리의 세계를 만난다. 2006년에 개봉한 이탈리아 영화, ‘천국의 속삭임’이 그리는 이야기다.

글. 차미경 문화칼럼니스트



13개 국제영화제에서 작품상·관객상·특별상을 수상한 이탈리아 영화, ‘천국의 속삭임’

### 시력을 잃은 소년 미르코의 아름다운 성장기

공부보다 동네 친구들과 뛰어노는 것이 더 즐거운 여덟 살 소년 미르코. 책을 권하는 아빠에게 책보다 TV를 사달라고 말하는 해맑은 아이다. 아직 TV가 귀하던 시절이라 아들의 절없는 요구가 난감한 아버지만 한없이 사랑스러운 눈길로 나중에 돈 벌면 꼭 사주겠다고 어린 아들과 약속한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되었다.

매사에 호기심 많은 미르코가 부모님 몰래 선반 위에 걸어둔 장총을 꺼내 만졌다가 실수로 발사된 총에 두 눈을 잃고 만 것이다. 다시는 TV를 볼 수 없게 된 것보다 더 슬픈 건 가족과도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 그 시절 이탈리아에서 장애아는 일반 학교에 다닐 수가 없었기 때문에 멀리 기숙사가 있는 맹인학교로 가야만 했기 때문이다.

미르코는 부모님과 떨어진 낯선 환경이 영 서툴고 외롭다. 학교에서 받는 교육에도 영 흥미가 없다. 흥미는커녕 배우고 싶은 의지조차 없다. 그러다 우연히 손에 잡게 된 낡은 녹음기 하나. 그것을 통해 미르코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세상에는 얼마나 다양하고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소리들이 많은지. 녹음 버튼을 누르면 신기하게도 그 소리들이 담기고 녹음기를 통해 다시 재생돼 나오는 소리는 미르코를 아주 재미있는 상상 속의 세상으로 데려다준다. 미르코는 그 소리들을 귀로 듣고 마음껏 그 소리를 상상하고 표현하는 일이 너무너무 흥미롭다.

“과랑은 자전거를 탈 때, 네 얼굴을 스치는 바람과 같아.”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아 색을 전혀 알 수 없는 친구 펠리체에게 미르코는 과란색을 이렇게 설명한다. 또한 ‘빨강은 불, 하늘의 노을 같다’고 얘기해 주는데 이 영화의 원제(Red Like The Sky)는 그 표현에서 가져온 것이다. 미르코에게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시각 대신 다른 모든 감각을 동원해 느끼고 표현하는 독창적인 능력이 있다.

미르코가 눈을 감고 얻은 세상은 훨씬 더 풍성하고 깊고 아름답다. 미르코가 밤에 몰래 기숙사를 빠져나와 여자친구 프란체스카와 함께 시각장애인 친구들을 데리고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장면은 너무나 아름답다. 영화 속에서 들리는 수많은 소리와 프란체스카가 들려주는 화면해설만으로도 다른 그 어떤 관객들보다 행복한 표정으로 영화를 느끼는 소년들의 모습은 마치 영화 ‘시네마천국’의 어린 토토처럼 맑고 환하다.

### 최고의 음향감독 용이오 멘카치의 실제 이야기

미르코는 소리로 이야기 만드는 이런 독창적인 재능으로 후에 뛰어난 음향감독이 된다. 그렇다. 이 영화는 이탈리아 영화사에 최고의 음향감독으로 이름을 남긴 미르코 멘카치의 실화가 바탕이다. 직조 기술이나 전화 교환 같은 직업교육에만 치중하는 기존의 교육 방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소년의 독창적인 재능과 그것을 지켜주려는 따뜻한 선생님 그리고 아름다운 소년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 따뜻한 이야기를 완성하는 데 감독은 실제 시각장애인 아이들을 출연시켜 이야기에 질감을 더해 주었다.

미르코를 지켜내기 위해 선생님과 졸업생 시각장애인 선배들, 그리고 노동운동을 하던 노동자들까지 연대하여 잘못된 교육정책과 싸워내는 모습은 감동적이지만 결코 신파적이지 않다. 결국 이탈리아는 1975년 장애인도 일반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킨다.

“네 안엔 뭔가 아주 특별한 게 있어. 아주 독창적인, 남들에게 없는 너만이 가진 것. 나와 약속하렴. 여길 떠날 때 어느 누구에게도 그걸 뺏기지 않겠다고.” 선생님인 줄리아 신부님이 미르코가 학교를 떠날 위기에 있을 때 해준 말이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어야 할 말 아닐까. 특별함이란, 탁월한 재능이나 비범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만의 독특함. 바로 그것이 ‘특별함’이다. 그것은 누군가와 겨루어 이겨야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떠들썩한 성공을 거두어야만 빛나는 것도 아니다. 그저 자신만이 가진 독특한 빛깔을 발견해 주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조화롭고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길을 내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육이 아닐까.

# 나누고 싶은 일상의 발견

## #이런경험 #이런생각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도 생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장애인과 일터] 독자가 발견하는 반짝거리는 순간과 경험, 사연을 소개합니다.

‘#공감태그’는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코너입니다. 공유하고 싶은 일상, 장애인 친화적인 공간과 서비스 등을 사진에 담아 [jangteo@kead.or.kr](mailto:jangteo@kead.or.kr)로 메일을 보내 주세요. 사진이 소개된 분께 기프트콘을 드립니다.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셔야 모바일 기프트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탄천 #산책 #비온뒤맑음

행복은 멀리 있지 않나봅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눈부신 햇빛 아래 가을의 선선한 바람을 느끼고, 맛있는 식사 후 걷기만 해도 세상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늦가을, 탄천길을 걸으면서 푸르른 나무와 오리가족들을 구경하며 도심 속에서의 평화로움을 느껴보세요.

권○림 님



### #카페 #격려의말 #말의힘

카페에서 전달받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일하며 받은 스트레스를 잠시 잊게 해줍니다. 저도 주변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는 하루를 보내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신다면 어떨까요?

김○희 님



### #가을여행 #휴가 #효도

오랜만에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지에서 행복해하시는 부모님 모습을 보니 저도 함께 행복해졌습니다. 조금 더 자주 찾아뵙고, 자주 연락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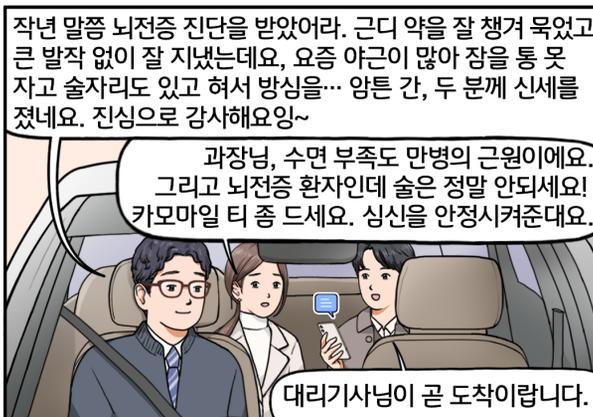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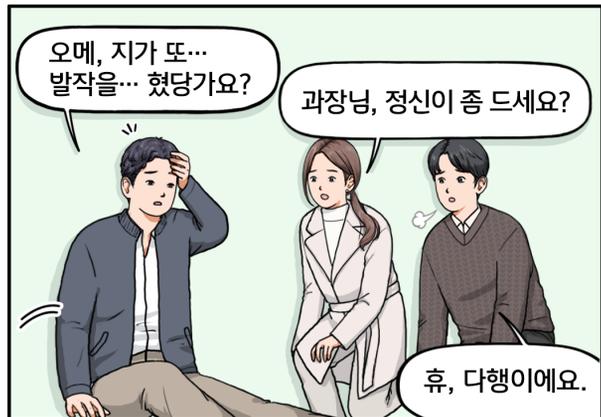
소통협력실 강○구 과장

# 함께 일하는 세상을 위한 장애 유형별 에티켓

## - 뇌전증장애 편

그림 권도연







# KEAD SNS 하이라이트

## ‘좋아요·댓글·구독·알림설정’



**N blog**  
blog.naver.com/kead1

**장애로 인정되는 은둔형외톨이**  
최근, 장애 개념을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한 정부. 그중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은둔형외톨이에 대해 내꿈내일기자단 10기 박은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까요?

**내꿈내일기자단 10기**  
장애로 인정되는 은둔형외톨이

**N blog**  
blog.naver.com/kead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SG 경영**  
다 함께 일하는 사회를 위한 노력.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진행하는 ESG 경영을 통해 함께 알아보시다.

다 함께 일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해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SG 경영**



**Instagram**  
haha\_kead

**내꿈내일기자단 10기**  
장애인 고용 늘리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 늘리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무엇이고 장애인고용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내꿈내일기자단 10기 박은진 기자가 자세하게 소개해드립니다.

**Instagram**  
haha\_kead

**당당한 이야기**  
저도 가을야구를 관람하고 싶어요.

**저도 가을야구를 관람하고 싶어요.**  
시원한 가을에 뺄놓을 수 없는 인기 스포츠, 야구 장애인들의 야구장 이용은 어떨까요?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이야기, 당당한 이야기에서 살펴봅시다.

